

“야구로 행복했다, 고맙다 타이거즈”

KIA 한국시리즈 우승, 광주 넘어 호남인·KIA 팬들에 큰 감동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이 도시에서 타이거즈는 운명이자 자랑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은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큰 위로 받고 자긍심도 커져

2024년 10월 29일, 광주의 하루는 야구 하나만으로 행복했다. 전남 KIA 타이거즈가 12번째로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린 모습에 눈시울을 붉힌 지역민과 팬들도 많았고, 우승의 감동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관련기사 2·3·18·19면> 직장갑외가, 음식점 등지에 삼삼오오 모인 지역민들은 타이거즈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 소식에 웃음꽃을 피웠고, 넘쳐나는 야구 상식과 뒷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광주시민 모두가 감독이고, 누구나 선수’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한명재 MBC 스포츠+ 캐스터의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이 도시에서 타이거즈는 운명이자 자랑이었다”는 방송 우승 콜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타이거즈가 호남인에게 안겨준 위로에 대한 공감도 많았다.

또한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라고 슬퍼했던 전 LA다저스 토미 라소다 감독의 말도 회자되면서 ‘야구가 끝난 한 해’를 아쉬워하는 지역민과 팬도 많았고, 내년 시즌 2연패와 ‘왕조 건설’에 대한 기대도 넘쳐났다.

29일 방송국 등에 따르면 프로야구 KBS 중계 광주시지역 시청률은 38%를 기록하며, 이 지역 열 집 중 네 집 남짓은 텔레비전을 통해 어젯밤 타이거즈의 우승을 지켜봤다. 삼성 라이온즈에 선취점을 내준 뒤 타이거즈가 동점과 역전에 성공한 순간,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도심 곳곳의 맥줏집과 식당 등지에서 단체 응원을 하던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승리의 여운은 다음 날로 이어져 우승 기념 무료 행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29일 서구 농성동 한 카페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면 무료로 커피를 준다’는 약속을 지켰고, 이날 하루 찾아온 시민

의 발길로 북적였다.

한명재 캐스터의 우승콜에 대한 지역민의 감동도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민들은 SNS에 한 캐스터의 우승콜을 공유하며 “타이거즈와 함께여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의 아픔 속에서도 광주가 프로야구를 통해 슬픔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았던 역사가 묻어 있는 한 캐스터의 우승콜은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타이거즈의 승리는 광주만의 기쁨이 아니었다. 이날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호남인에게는 “타이거즈 우승을 축하한다”는 인사가 이어졌고, 호남 출신 정치인들도 SNS 등을 통해 고향팀의 우승을 주변에 알렸다.

또 지역민들은 올 한 해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은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큰 위로를 받고 자긍심이 든다고 입에 모았다. 또 최근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E)에서 ‘도장깨기’ 중인 광주FC의 ‘만화 같은 승리’도 야구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정규시즌과 가을야구 우승으로 위로를 안겨준 프로야구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지역민도 많았다.

올 시즌 전, KIA 타이거즈는 감독과 단장 교체로 통한 ‘초보 감독’의 부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과 팬들은 많은 우려를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초보 감독’과 똘똘 뭉친 타이거즈 선수들은 시즌 초반부터 1위를 수성하고 김도영이라는 스타 선수까지 배출해가며 지역민들과 팬들에게 올 한 해 즐거움을 선사했고, 이 지력은 내년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해태의 영광’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내년 우승과 ‘왕조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올해 KIA의 선발 투수 5명 중 윌 크로우, 이의리, 윤영철, 제임스 네일의 잇단 부상 속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던 “쥘이지 않는 호랑이 DNA”가 내년 시즌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지역민의 믿음은 막을 내린 야구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한 KIA 선수들이 팬들에게 삼폐인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빛그린산단 이전 속도낸다

‘유형자산취득결정’ 공시
15만평 1160억에 매입키로
광주송정역 개발 등 ‘탄력’

지부전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합병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합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을 계획한 지 꼭 3년 만이다.

다만 1조 4000억원 수준의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면 현 광주공장 부지 매각이 동반돼야 하는데, 광주시와의 용도변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 개발 의사를 밝힌 대형 투자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2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형자산취득결정’을 자율공시했다. 합병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 소재 토지(합평군 월야면 외치리 1701-1일원) 50만㎡(약 15만1250평)를 1160억 8417만원에 매입한다는 게 공시 내용이다. 취득일은 30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21년 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6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협약 체결 3년 만에 토지 매입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신공장 착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의 빛그린산단 토지 매입이 현실화되면서,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 마련과 현 부지 매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신공장 건립 비용을 1조 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올 3분기 14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매출 호조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 부지 매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부지 매각에 앞서 현 공장 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투자 자본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게 금호타이어측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특혜’로 규정하고, 현 공장을 폐쇄한 후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반에 중국 자본인 현 금호타이어의 ‘투자 먹튀’ 가능성을 우려하는 불신이 깔려 있는 점도 부담이다.

물론 광주시와 지역 산업계 모두 부지 매각 및 용도변경 난항을 떠나 금호타이어의 합병 이전을 서두르는 게 회사는 물론 광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노후한 광주공장은 자동화와 수동화가 상존하는 반자동 사업장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생산 확대와 품질 강화를 고려하면 자동화된 신공장 건립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산업단지 측에 사업계획서와 계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신청 후 3년 안에는 착공을 해야 하는 만큼 공장 이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호타이어와 광주시 모두 현 부지 매각 문제를 적극 소통하고,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